

서호인의 '소설처럼'



태고와 광주 - 율가 토카르축 '태고의 시간들'

'태고의 시간들'은 그동안 흔히 접할 수 없었던 폴란드 소설이다. 저자인 율가 토카르축은 '방랑자들'이라는 작품으로 2018년 맨부커상(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작가다. (우리나라 작가로는 소설가 한강이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상의 후광이 아니더라도 율가 토카르축은 폴란드의 대표적 소설가로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동시에 받아왔다.

라파우를 태고(太古)라는 말로 옮겨 신는다. 라파우라는 지명은 폴란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 뜻은 시간과 공간이 중첩되는 장소라고 한다. 시공을 초월하는 상징적인 단어이니, 태고라고 하는 게 소설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될 성싶다.

소설에 빠져 읽다 보면, 태고라는 발음이 폴란드의 어느 마을의 이름처럼 심지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것은 아마도 근대 이전의 전형적 삶이었던 태고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근대화를 맞이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죽음이 깃든 마을이 되고, 또한 끈질긴 생명력으로 삶을 지속하는 이들의 타성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과 멀지 않은 곳에 태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폴란드가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였다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하는 시기는 훨씬 앞당겨졌을 테고, 영국이나 미국의 소설이었다면 그보다도 빨랐을 것이다. '태고의 시간들'로 시작하여 앞으로 많은 작품의 번역 출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폴란드 문학의 정수를 만끽하고 싶은 독자들은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런 독자들이라면 먼저 '태고의 시간들'을 읽기를 추천한다.

소설의 주된 공간은 '태고'라는 작은 마을이다. 폴란드 발음으로는 '라파우'이나 번역자는 소설에서 언급되는 다른 마을, 도시, 혹은 고유명사들과는 달리

라파우를 태고(太古)라는 말로 옮겨 신는다. 라파우라는 지명은 폴란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 뜻은 시간과 공간이 중첩되는 장소라고 한다. 시공을 초월하는 상징적인 단어이니, 태고라고 하는 게 소설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될 성싶다.

작가는 폴란드에서 실제로 일어난 현대사의 격동을 태고에 살았던 거의 모든 존재를 주인공으로 하여 엮어 나간다.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작디작은 인간의 부분과 부분을 환상적이고도 우화적으로 표현하여 종래 그것의 역사를 기록한다. '태고의 시간들'은 소수자가 기록의 주인이 되고, 그럼으로써 소설은 인간의 본질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광주는, 호남은, 지금 무엇으로 창조될 수 있는가. 지금 광주의 오월에 상상력을 덧붙인 소설적 진실이 가당한 이야기인가? 희생된 시민들의 단축된 삶을 거름 삼아 마련된 민주주의 과실은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한때 울창했던 태고의 과수원은 나치 군대에 의해 짓밟혀 돌무더기가 되었다. 그 장면까지도 폴란드의 소설가는 참혹한 아름다움으로, 미적으로 표현한다.

社說

5·18 39주년 극우단체 도발에 휘말리면 안 된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이 광주에서 5·18을 폄훼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념식 참석에 대해서도 5월 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황대표에 대해서도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약속과 조건 없는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하지 않으면 기념식 참석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극우단체 집회에 대한 시의회 답변을 통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광주 시민들에게 무관심·무대응으로 지체롭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시장의 지적처럼 극우 집회는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5·18 유공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명단과 공적 조서 공개를 요구해 온 극우 성향 보수단체들은 5·18 전야제가 열리는 17일 전남대 후문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18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와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80년 이후 기념일 당일 광주에서 5·18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집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5월 단체들은 이를 지역민을 상대로 한 '역사적 도발'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5·18 행사위원회와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단체의 집회는 제사상을 권여차겠다'는 패륜적 행위라며 집회를

따라서 그들의 간교한 목적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대신 보수 세력의 집회가 집회가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집회를 통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면 된다. 절제된 언행으로 저들의 어떠한 획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광주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자.

광주 대표음식 특별함 담아 브랜드화 해야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외지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을 해 봤을 것이다. '맛의 고장'이라지만 정작 실제 내세울 만한 광주 음식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오래전 서울에서 온 지인이 광주 음식 가운데 '상추 튀김'을 첫손에 꼽아 놀란 적이 있다.

이들 음식에는 광주의 지나온 역사와 문화, 광주인의 삶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특히 주먹밥은 외부와 단절된 5·18항쟁 기간의 '대동세상'을 상징한다. 상추튀김은 광주에서 시작된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다. 보리밥 역시 어려웠던 시절의 음식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음식으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

공पाल 치료가 있어서는 한방이 장점이 많다. 다만 무지와 편견이 있을 때 가치가 소외된다. 한약은 예로부터 공팔의 질병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였다. 현대의 신우신염 및 신장염과 요독증 등의 치료에도 한약의 인진, 저령, 택사, 대북피 등의 약물들이 사용된다. 신장의 대사를 개선하는 약물들이다. 민간 처방으로도 옥족수(옥수수 수염), 검은 콩, 늙은 호박, 수세미 등이 좋다.

맛있는 음식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요소라는 점에서, 광주 7개 대표음식은 선정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먼저 대표음식으로서 브랜드화가 되어야 한다. 또한 대표음식 상품화를 위한 조리법을 개발해 표준화 및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시책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일이다. '맛의 고장'답게 식당 운영자들의 '엄마의 손맛'같은 정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광주 음식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여름은 상상의 계절이다. 마침 콩과 팥도 파종의 계절이다. 조화와 상생의 개념이 절실하다. 인체에도 공팔을 새롭게 보자. 콩과 팥의 본리를 넘어 공팔의 건강함과 조화를 찾아보자. 건강은 순환, 순환은 리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자. 콩심은 데 팔도 나도록, 공팥은 보여준다. 건강은 포용하는 것이다. 노폐물조차,

無等鼓

전시장 책상에 놓인 엽서 중 한 장을 선택하고 펜을 들었다. 수신인은 서울 사는 친구.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신 손글씨로 엽서를 쓰려니 영 어색했다. 나중에 차분히 쓰자 싶어 '오월 광주 옛 전남도청' 소인이 찍힌 엽서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다.

5월 여러번께 감사하다"며 수신서를 '국립묘지 어딘가'로 적은 이도 있다. 4학년 4반 14번 수신어는 "5월18일을 잊지 않을게요. 그곳에서 꼭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라며 인사를 전했다.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 가면 '오월 안부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다. 전남도청, 전일빌딩 등 '광주'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실린 엽서에 글을 써 '오월 우체통'에 넣으면 국내외 어디든 배송해 주는 기획이다. 일상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 그 자체가 5·18의 자산인 공동체 정신의 '또 다른 모습'이자 광주를 '기억하는' 방법이라 생각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17곳에서 진행 중이다.

'오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집 5·18 자공원에 많은 사람의 발길이 이어지는 걸 보고 느낀다. 이따금씩 꽃이 피기 시작하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공원을 찾아 옛 상무대 영장 등을 둘러본다. 버스 타고 온 외지 순례객들도 많이 눈에 띄어, 광주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생각도 해 본다.

'광주'를 기억하는 법

전시실엔 부치지 못한 엽서들도 있다. "엄마, 엄마와 평생을 살아온 광주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의해 지켜져 왔어. 엄마가 나를 지키듯, 나 또한 광주를 사랑하고 지킬게. 사랑해 엄마." 하는 나라 엄마에게 띄운 누군가의 엽서는 몽글하다. "5월의 나를 잊게 해 준 그 때의

스를 타고 온 외지 순례객들도 많이 눈에 띄어, 광주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생각도 해 본다.

하지만 공원 바로 옆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앞을 지날 때면 안타깝고 답답해진다. 어지럽게 내걸린 플래카드와 천막 농성장 때문이다. 5·18 진상 규명이나 왜곡 반대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인가 싶었는데 5·18 단체의 '집안싸움' 플래카드였다. 이 상황을 본 외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낯 뜨겁고 씁쓸하다.'

광주를 기억하는 작은 움직임은 무엇일까. 그날의 현장을 찾아보는 것,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엽서를 띄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터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의료칼럼

콩과 팥



안수기
그린요양병원 대표원장·한의학 박사

는 익숙했다. 모두가 알았다. 세월이 변하여 점차 사라지는 용어이다. 인체에서는 콩과 팥, 이들의 경계가 없다. 이질감이 사라진다. 콩이 팥과 동맹이 가능한 것이다.

장에 해당한다. 안전한 환경은 사회 공동체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인체에서도 공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콩팥, 신장(腎臟)의 또 다른 이름, 둘을 하나로 묶는 지혜, 어떻게? 추측하건대 생김새는 콩 모양이되, 그 색깔은 팥과 같다. 이름이 비유한다. 콩팥은 조상들에게, 특히 남자에게는 자부심, 그 자체였다. 이유는 힘을 상징했다. 정력 등의 성적인 능력의 원천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 원천에는 한의학적 사고가 내재된다. 일명 장부 학설, 장부가 맡은 바 역할이 있다는 것이며, 모든 병이 장부와 연관된다는 이론이다.

공팥 치료에 있어서는 한방이 장점이 많다. 다만 무지와 편견이 있을 때 가치가 소외된다. 한약은 예로부터 공팔의 질병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였다. 현대의 신우신염 및 신장염과 요독증 등의 치료에도 한약의 인진, 저령, 택사, 대북피 등의 약물들이 사용된다. 신장의 대사를 개선하는 약물들이다. 민간 처방으로도 옥족수(옥수수 수염), 검은 콩, 늙은 호박, 수세미 등이 좋다.

콩팥은 한의학의 오행(五行)의 분류에서 수(水)에 해당하는 장기다. 물의 장기이다. 방광과 가장 관련이 깊다. 두 발과 뼈와 청력 및 짠맛 등과도 연관성이 있다. 현대의 남녀의 성기와 부속 기관 및 생생활과도 연관된다. 여성의 월경, 임신, 출산 등 기능들을 총괄한다. 따라

행할 수 있게 된 것도 환영할 일이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상향식으로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포괄 보조로 지원한다. 시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신청한 '공기정화 기술 개발 및 경제 생활 SOC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업이 선정되어 좋은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전망이라는 암울한 소식이 그것이다.

행동 수 있게 된 것도 환영할 일이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상향식으로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포괄 보조로 지원한다. 시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신청한 '공기정화 기술 개발 및 경제 생활 SOC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업이 선정되어 좋은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1984년부터 계획 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영국은 지역민권협의회(LEP)를 구성하여 지역별 지원 사업과 규모를 결정하여 중앙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분권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지역 살리기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방 창생을 펼치고 있다. 연간 약 10조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지자체에는 지방 창생 선도 사업을 교부금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다.

좋은 나라는 각 지역이 고루 잘 산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의 '인공 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 조성' 사업은 다른 지자체가 SOC를 향해 갈 때 유일하게 선택한 전략 사업으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지역 균형 부문의 점수 비중을 높인 예타 제도 개선으로 지역의 대형 국책 사업이 보다 순조롭게 진

지방은 여전히 어렵다. 지역의 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강하다.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5%, 전체 예금액의 69.2%, 국제 수입의 55.1%, 질 좋은 일자리 82%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잡사는 국가들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의 본질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귀결된다. 광주 광역시도 이런 정책 틀 내에서 민선 7기 들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의 열악한 고용 환경과 구조적인 노동 시장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다. 완성자 공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전남본부 220-0642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